

◎ 韓國 및 日本의 플랜트輸出現況과展望

編輯者 註 :

요즘 政府와 民間企業이 積極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플랜트輸出에 對한 定義를 간단히 說明하고 韓國의 플랜트輸出現況을 살펴 보았음.

○ 플랜트輸出이 단

主로 開發途上國이 自國의 工業化促進을 위한 各種 開發 Project를 具體化하는데 必要한 設備와 技術을 先進國으로 부터 導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플랜트輸出은 반드시 開發途上國이 先進國으로부터 輸入하는 것은 아니고 先進國間 또는 開發途上國間에도 플랜트輸出入은 이루어지고 있다.

成功的인 플랜트受注를 위해서는 價格要因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非價格要因의 役割이다.

即 技術, 信用度, 過去実績, 納期, After Service 金融條件등이 플랜트 受注에 끼치는 영향은 一般商品輸出에는 비할바가

아니다.

플랜트受注를 위한 國際入札에서 비록 價格競争이 他國에 비해 有利하다해도 落札되지 않는 경우는 非價格要因이 充分히 競争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플랜트輸出은 一般商品輸出과는 달리 共通的으로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1. 플랜트輸出國의 産業水準을 端的으로 表示한다.
2. 外貨稼得率이 높다.
3. 販賣競争이 甚하다.
4. 契約規模가 크다.
5. 輸出波及效果가 크다.
6. After Service가 必須的이다.
7. 附加價值가 크다.
8. 輸出契約條件이 복잡하다.
9. 經濟協力的效果가 크다.

내략 以上과 같은 점이 플랜트輸出이 갖는 特性이며 플랜트 輸出國이나 輸入國 모두 國內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多大하므로 우리나라도 플랜트輸出振興을 위해 積極 努力해야 할 것이다. 다음 플랜트輸出節次를 간단히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 플랜트輸出卽次

妥当性調査 → 入札仕様書作成 → 応札 →

契約交渉 → 플랜트輸出契約 → 器機製作 →

装置 및 建設工事 → 試運転 및 要員訓練 →

完成 → 引渡 → 操業指導

한편 플랜트輸出의 契約形態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플랜트輸出契約은 첫째 이행해야 될 契約의 業務範圍에 따라 FOB型 契約과 Turn Key型 契約의 두種類로 分類된다.

FOB型 契約은 다시 FAS, FOB, C & F, CIF型的 네가지가 있으며 Turn Key型 契約은 Semi-turn Key, Chef montage Full Turn Key의 세種類가 있다. OB型 契約은 플랜트用 器機, 資材만을 販賣하는 것이나 Turn Key型 契約은 플랜트의 販賣뿐 아니라 装置, 建設, 試運転 등을 包含하는 것이다.

Chef montage型 契約이란 装置建設에 必要한 人員과 資材를 購買者가 自己費用으로 부담하나 그에 관한 管理責任을 판매자가 지는것을 말한다.

둘째 플랜트의 價格決定 方法에 의한 分類는 Lump Sum型 契約과 Cost Plus fee型 등이 있다.

Lump Sum型 契約은 總契約額을 契約時 確定해 두 方法으로 가장 많이 利用되고 있으나 Cost Plus fee型 契約은 契約時 價格을 定하지 않고 与件의 變動에 따라 價格을 決定함으로서 販賣者로서는 有利한 契約形態이나 特殊한 경우에만 適用 된다.

## ○ 日本의 플랜트輸出現況과 政府의 支援施策

戰後 日本의 輸出傾向은 外貨獲得 輸出商品 國際競争力強化 및 重化学 工業化를 도모하여 鉄網, 船舶, 自動車, 家電製品 등의 輸出이 놀랄만큼 伸張되어 日本의 經濟復興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日本의 主宗輸出商品이 世界市場에서 차지하는 國際競争력이 점차 尙해지자 輸出相對國들 特히 美国, EC會員國 등은 日本의 鉄網, 電子製品등의 지나친 輸入에 대해 自國産業의 보호를 위해 強力한 反撥措置를 要求 하게 되었다.

日本은 이러한 상황에서 脫피하면서 輸入國側의 反作用이 없는 플랜트輸出에 注力하기 시작하여 이미 1940年代부터 플랜트 輸出促進 Engineering 体制強化등이 政策的으로 論議

되었다.

即 플랜트輸入국은 自國의 食糧自給化를 위한 肥料工場建設, 工業化를 위한 금속, 化学, 發電部門의 施設 내지 擴充, 社会間 接資本인 鐵道, 通信, 道路 등의 新設등 工業開發促進을 위해 資本 및 与件이 許諾하는 한 플랜트를 輸入해야 하므로 輸出 國에 대한 反발은 있을수가 없다.

또한 輸出國은 一般 輸出商品에 비해 附加價值와 外貨稼得率 이 훨씬 높은 플랜트輸出에 注力하여 國內의 機械類, 輸出增大 重化学工業育成 關聯産業의 多方面에 걸친 波及效果로 中小企業 育成등 國內적으로 대단한 공헌을 하게 된다.

日本의 플랜트輸出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1940年代부터 論議되었으나 플랜트輸出이 本格的으로 始作된 것은 輸出産業의 重工業化가 이루어지고 國際競爭力 強化된 60年代부터 이다.

即 別表에서 보듯 1966會計年度 日本의 플랜트輸出은 件數로 90件, 金額으로 US \$ 327 百万으로서 總 輸出額인 US \$ 9,958 百万 等 3.2 %를 차지하고 있으나 76년에는 件數 680件, 金額 US \$ 8,006 百万으로서 日本의 總 輸出實 績인 US \$ 74,957 百万中 10.7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毎年 件当規模가 大型化되어 76년에는 플랜트 1件当 平均 US \$ 11.8 百万에 達해 플랜트輸出의 大型化를 実感 할 수 있다.

이는 石油波動 以後 各種 原資材의 價格上昇으로 인한 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産油國의 莫大한 外貨資本을 利用한 國際規模의 플랜트建設 推進과 開發途上國과 共產권 諸國들이 經濟開發을 위해 石油化學플랜트등 大型 플랜트를 導入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최근의 플랜트輸出傾向이 資材의 輸出에만 그치지 않고 設置, 稼動, 修理, 土木工事등을 수반하는 Full turn Key 型 契約方式이 增加되기 때문에 件当規模가 커지기도 한다.

76年度 日本의 總 플랜트輸出実績은 US \$ 3,006 百万으로서 前年對比 52.7% 增加되어 毎年 플랜트輸出은 好調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同実績은 日本 通産省의 目標인 US \$ 120 억 에는 未達되었는데 이는 주로 中東地域에서의 플랜트契約의 取消와 延期로 인한 것이다.

한편 地域別 実績을 보면 과거에는 東南亞가 首位를 차지 했으나 76년에는 中東地域이 全体の 36.3%로 단연 높고

다음에 東南亞로 15.8%, 아프리카가 7.1% 등이다.

또한 日本은 77 會計年度中 150 億弗의 플랜트輸出을 計劃하고 있다.

OECD 統計에 의한 1974 年の 全世界 플랜트輸出実績中 主要 플랜트輸出국이 차지하는 比重은 美国이 25.5%로 단연 높고 다음에 西獨이 22.8%, 英國 9.4%, 日本 8.1% 등으로 日本은 아직 美国이나 西獨에 비해 1/3 정도밖에 미치지 못해 日本政府는 플랜트輸出의 急進的 發展을 위해 다음과 같은 支援을 하고 있다.

1. 輸出入銀行의 延払金融擴大
2. 事前調査 委託制度 実施
3. Bond 保險 創設運營

다음 表는 最近 10 餘年間 日本의 플랜트 輸出実績이다.

日本の 플랜트輸出実績

(单位: US \$ 百万)

年 度	日本の總輸出実績 (A)	플랜트輸出実績			占有率 (B/A)
		件 数	總 額 (B)	件当金額	
1966	9,958	90	327	3.6	3.2 %
1967	10,774	127	508	4.0	4.7
1968	13,071	129	491	3.8	3.6
1969	16,798	167	711	4.2	4.2
1970	20,250	213	965	4.5	4.8
1971	25,124	231	1,304	5.6	5.2
1972	29,999	257	1,491	5.8	5.0
1973	39,695	350	2,198	6.3	5.5
1974	58,440	415	3,858	9.3	6.6
1975	56,982	489	5,240	10.7	9.2
1976	74,957	680	8,006	11.8	10.7

○ 우리나라 플랜트輸出現況과 展望

우리나라의 플랜트輸出은 이제 始作하는 段階이므로 아직 커다란 実績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 昨年以來 계속 활발히 推進되고 있다. 事實 우리나라는 現時点으로 보아 플랜트輸出國 이라기 보다는 輸入國이라는 편이 옳으나 政府는 今年度



100億弗 輸出目標의 達成을 爲해 重化學工業育成에 注力. 特히 플랜트輸出振興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이러한 政府施策과 民間企業의 不斷한 努力으로 우리나라는 昨年末 現在 總7件의 플랜트輸出을 했으며 金額으로는 US \$ 25,450 千이었으며 今年 5月末까지 契約締結했거나 商談中인 플랜트는 總16件에 US \$ 350 百萬에 達했다.

다음 表1은 우리나라의 플랜트輸出実績이며 表2는 現在 商談이 推進中인 것으로 業界의 努力에 따라 그 規模는 점차 擴大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플랜트輸出可能 分野는 石油精製, LPG 製造, 石油化學, 肥料, 送油管, 電力, 製鋼, 鐵道, 시멘트, 製紙, 製鉄, 船塢 纖維加工, 食品加工, 皮革加工 等 여러 部門에 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 可能한 分野의 플랜트輸出振興은 아니라 其他의 高度技術産業에 對해서도 先進國의 技術을 導入하여 끊임없는 技術革新을 통해 플랜트輸出에 매진하면 우리나라의 플랜트輸出前途는 매우 有望하다고 하겠다.

<表1>

플랜트輸出実績

( 77年 5月末現在 )

業 体 名	品 目	金 額 (US \$ 千)	地 域
全엔지니어링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플랜트	6,000	사우디아라비아
韓一시멘트	製鋼圧延工場	1,580	인도네시아
서울昧元	글루타민산소다工場	3,800	"
유한김벌리	製紙플랜트	1,000	칼 룬 비 아
大韓重機	水 門 工 事	1,200	대 만
勝利機械	織 維 工 場	1,000	아프가니스탄
現代建設	修理所(造船)	300	사우디아라비아
"	소 결 工 場	1,000	오스트리아 再下請
"	발전소 연돌	150	인도네시아
現代洋行	시멘트工場	120,000	뱅글라데시
"	"	140,000	사우디아라비아
"	"	140,000	뉴기니아
和信産業	銅製鍊플랜트	25,000	태 국
利川重機	製紙플랜트	200	스리랑카
해태製菓	비스켓工場	3,500	두 바 이
嶺南生糸	絹織物工場	17,000	사우디아라비아
江原産業	發電所建設	5,000	스 웨 덴
東洋化学	소다灰工場	28,000	페 루

資料：商工部，各商社

<表 2>

플랜트輸出商談 推進現況

( 77 年 5 月 末 現 在 )

業 体 名	品 目	金 額 (US \$千)	地 域
現代建設	電化事業플랜트	150,000	사우디아라비아
江原産業	항만 부두시설	9,800	이 락
"	파이프 휘팅設備	5,000	두 바 이
"	鉅船精鍊施設	6,000	이 란
利川重機	製紙플랜트	6,000	카 타 르
"	엔진 제너레이터 設備	700	인도네시아
"	파워 프레스設備	600	"
汎洋冷凍	空氣調節施設	500	인도네시아
"	空氣調節施設	500	두 바 이
大韓重機	製釘 플랜트	1,500	바 레 인
"	"	1,500	두 바 이
元豊産業	섬유 공장	500	인도네시아
三星物産	肥料工場	100,000	스 리 랑 카
"	칼슘工場	600	인도네시아
"	시멘트工場	20,000	네 팔
"	셀로판工場	未定	인도네시아
山谷工作所	皮革加工施設	1,000	인도네시아
"	"	1,500	인 도
"	"	1,500	모 로 코

資料：商工部，各商社